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현주¹, 김현정², 변은경^{2*}

¹창신대학교 간호학과, ²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empathy for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Hyun Joo Yang¹, Hyun Jung Kim², Eun Kyung Byun^{2*}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 공감력의 정도를 알아보고 노인에 대한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교육에서 노인에 대한 공감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는 B시, C시의 간호대학생 27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WIN/20.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검정, 일원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분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은 12.08±2.79점, 노인에 대한 태도는 77.12±12.33점, 촉진적 의사소통은 3.73±0.34점, 공감력은 214.66±22.72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공감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노인 간호 업무 선호도(F=3.929, p=.004), 아버지와의 관계(F=2.433, p=.035), 어머니와의 관계(F=3.123, p=.009)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공감력은 노인에 대한 태도(r=.224, p<.001), 촉진적 의사소통(r=.346, p<.001)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에 대한 태도와 촉진적 의사소통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5.4%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와 공감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empathy with the elderly in student nurse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on nursing education to improve empathy. Data were collected from 277 student nurses in B and C cities and analyzed by the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20.0. The degree of empathy with the elderly in the student nurses was 214.66±22.72.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empathy and attitude of the elderly (r=.224, p<.001) and between empathy and facilitative communication (r=.346, p<.001), and these factors explained 15.4% of the empathy with the elderly.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ursing education program and curriculum for increasing empathy in student nurses.

Keywords : Attitude, Elderly, Empathy, Facilitative Communic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의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은 빠르게 증

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2011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1.3%에 이르렀고, 2030년에는 24.3%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1].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화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해 간호 요구

*Corresponding Author : Eun Kyung Byun(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Tel: +82-10-5574-2065 email: bek@kit.ac.kr

Received February 17, 2016
Accepted May 12, 2016

Revised (1st March 16, 2016, 2nd April 8, 2016, 3rd May 10, 2016)
Published May 31, 2016

도가 높은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노인 인구에 대한 간호사 인력수급에 대한 요구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다[2].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간호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고 유능하게 노인들을 간호할 수 있는 간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3].

노인 대상자를 대하고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우선적으로 노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올바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노인 간호수행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인에 관한 지식부족과 노인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은 노인에 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4], 부정적인 태도는 노인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5]. 향후 임상현장에서 종사하게 될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노인 간호를 위한 과제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높았던 연구결과[6]와 노인 인식에 가장 높은 영향요인이 지식으로 나타난 결과[7]는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고 노인 간호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간호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노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이 의사소통능력이다. 의사소통은 대상자인 인간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그들이 가진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최상의 건강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주며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실행, 활동에 대상자를 적극 참여시켜 인간의 건강을 향한 행동변화를 일으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간호실무에 매우 중요하다[8]. 또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대상자의 정서적 안정, 증상완화 및 생리적 기능의 호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은 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서의 직접 간호수행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대상자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기회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10].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은 이론과 임상실습에서 학습되고 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

해 간호대학생은 노인대상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습득하여 노인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공감력이 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상태, 내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11]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공감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12]. 또한 공감은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의 중심이고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유용하여 간호사의 공감력이 높을수록 대상자가 만족하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한다[13-14]. 간호사의 높은 공감력은 환자를 이해하고 지지적인 역할을 하여 대상자의 건강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15], 공감력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내어[16] 간호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1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과 공감력에 대한 연구[18-22]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노인 대상의 의사소통과 공감에 대한 연구[16,23]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간호대학생 대상의 공감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나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간호학과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감력은 훈련을 통해 증가될 수 있다고 한 보고[24]를 통해 간호학과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공감력의 정도를 알아보고 공감력을 높이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임상현장에서 예비간호사로서 준비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대상자에 대한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노인대상자에 대한 공감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2 목적

본 연구는 4년제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 공감력 정도를 알아보고 노인에 대한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 공감력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력의 차이

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 공감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간호대학생의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 공감력의 정도를 알아보고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5년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B시 C시에 소재한 4년제 간호학과와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허락한 학과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표본 수 크기 결정은 G*Power3.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중간 효과크기 .15, 통계적 검정력 .95, 독립변수(지식,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 일반적 특성) 15개를 고려할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인 199명이 산출되었다. 연구를 허락한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비밀유지, 설문지 작성에서 중도 거부나 중단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보조자들이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이 완료된 설문지만을 회수하였다. 총 323부를 배부하여 300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적절하지 않은 23부를 제외한 277부(92.3%)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노인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은 Palmor[25]가 개발한 ‘노인 사실 인지척도’ 도구를 1998년에 수정 보완된 True-False version의 Fact on Aging Quiz Part 1(FAQ 1)을 Lim, Kim, Kim[26]이 노인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5문항으로 각 진술에 대해 응답자가 그 진술이 맞는지, 틀리는지, 혹은 잘 모

르는지를 응답하게 되어 있고 각 문항은 노화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사실과 가장 일반적인 편견을 포함하였다. 점수는 문항별 정답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하여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25점이다. Palmore[25]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1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0 이었다.

2.3.2 노인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Sanders, Montgomery, Pittman, Baikwell[27]이 개발한 ‘노화의 의미분별척도’ 도구로 개인이 노인에 대한 그들의 느낌, 또는 믿음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한 답을 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m, Kim, Kim[26]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Lim, Kim, Kim[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2,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7이었다.

2.3.3 촉진적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 촉진적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Carkhuff[28]의 의사소통척도를 기초로 하여 Ma[29]가 제작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도구를 간호사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Lee[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의사소통 7개의 하위 변인(공감적 이해, 존중, 진실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별로 각 5개의 문항씩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1수준 1점에서 5수준 5점까지 각 하위문항별 최고점수는 2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73이었다.

2.3.4 공감력

본 연구에서 공감력을 측정하기 위해 La Monica[30]가 개발한 Empathy Construct Rating Scale(ECRS)의 도구를 Kim[31]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인에게 적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한 것을 Song[32]이 현재 간호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15개 역문항을 포함한 5점 척도 6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최저 60점에서 최고 300점 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Song[3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95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0.91$ 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 공감력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공감력의 차이는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노인의 지식 및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 공감력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자가 246명(88.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상자 연령은 평균 22.08 ± 4.50 세로 나타났다. 학년은 4학년이 81명(29.2%), 1학년 68명(24.5%), 2학년 66명(23.8%), 3학년 62명(22.4%) 순이었으며, 종교는 무교가 158명(57.0%)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 관련 과목 수강여부에 대해서는 '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43명(51.6%)으로 나타났고, 노인 관련 자원봉사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84명(66.4%)이었다. 노인관련 자원봉사 기간은 1년 미만인 151명(54.5%)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간호업무 선호도는 '보통이다' 가 177명(63.9%)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 대상 간호업무 수행의 어려움은 '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83명(6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매우 좋다' 가 98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매우 좋다' 가 134명(48.4%)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님의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예' 라고 대답한 사람이 236명(85.2%)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27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1	11.2
	Female	246	88.8
Age		22.08±4.50	
Grade	1st	68	24.5
	2nd	66	23.8
	3rd	62	22.4
	4rd	81	29.2
Religion	None	158	57.0
	Protestant	61	22.0
	Catholic	16	5.8
	Buddhism	36	13.0
	Others	6	2.2
Experience of elderly nursing education	Yes	143	51.6
	No	134	48.4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Yes	184	66.4
	No	93	33.6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period(year)	<1	151	54.5
	≤1	33	11.9
Intention to do gerontological nursing	None at all	11	4.0
	No	51	18.4
	Have no idea	177	63.9
	Have	33	11.9
	Strongly have	5	1.8
Difficulty of gerontological nursing	Yes	183	66.1
	No	94	33.9
Relationship with father	None	15	5.4
	Very bad	3	1.1
	Bad	6	2.2
	Moderated	66	23.8
	Good	89	32.1
Relationship with mother	Very good	98	35.4
	None	5	1.8
	Very bad	1	0.4
	Bad	4	1.4
	Moderated	32	11.6
Will living with parents	Good	101	36.5
	Very good	134	48.4
	Yes	236	85.2
No	41	14.8	

3.2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 공감력 정도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 공감력의 정도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은 12.08 ± 2.79 점, 노인에 대한 태도는 77.12 ± 12.33 점, 촉진적 의사소통은 3.73 ± 0.34 점, 공감력은 214.66 ± 22.72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Knowledge, Attitude,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Empathy(N=277)

Variable	M±SD	Min	Max
Knowledge	12.08±2.79	4.00	19.00
Attitude	77.12±12.33	44.00	134.00
Facilitative communication	3.73±0.34	2.11	4.37
Empathy	214.66±22.72	147.00	285.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력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공감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노인 간호 업무 선호도(F=3.929, p=.004), 아버지와의 관계(F=2.433, p=.035), 어머니와의 관계(F=3.123, p=.009)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of Empath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277)

Characteristics	Categories	Empathy	
		M±SD	t/F(p) Scheffe's
Gender	Male	215.87±29.56	0.099 (.754)
	Female	214.51±21.78	
Age	1	209.94±22.92	2.405 (.068)
	2	216.05±25.98	
	3	212.37±23.00	
	4	219.25±18.55	
Religion	None	213.38±21.93	0.781 (.539)
	Protestant	218.11±23.38	
	Catholic	209.81±24.29	
	Buddhism	217.06±24.54	
	Others	211.83±22.87	
Experience of elderly nursing education	Yes	216.27±20.80	1.478 (.225)
	No	212.96±24.57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Yes	214.64±22.39	0.001 (.980)
	No	214.71±23.50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period(year)	<1	217.03±21.70	1.993 (.138)
	≤1	208.09±27.58	
Intention to do gerontological nursing	None at all	193.91±21.60	3.929 (.004)
	No	210.10±22.48	
	Have no idea	216.15±20.72	
	Have	218.33±24.23	
	Strongly have	229.80±21.13	
Difficulty of gerontological nursing	Yes	213.87±23.24	0.645 (.423)
	No	216.19±21.72	
Relationship with father	Very bad	202.00±20.07	2.433 (.035)
	Bad	226.17±13.96	
	Moderated	209.02±22.31	
	Good	215.29±21.56	
	Very good	218.83±24.31	

Characteristics	Categories	Empathy	
		M±SD	t/F(p) Scheffe's
Relationship with mother	Very bad	216.00±00.00	3.123 (.009)
	Bad	218.50±22.66	
	Moderated	201.41±23.22	
	Good	213.72±21.01	
	Very good	218.49±23.31	
Will living with parents	Yes	215.36±22.46	1.514 (.220)
	No	210.63±24.06	

3.4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 공감력과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지식 및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 공감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공감력은 노인태도에 대한 태도(r=.224, p<.001)와 촉진적 의사소통(r=.346, p<.001)과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ttitude,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Empathy (N=277)

Variable	Knowledge r(p)	Attitude r(p)	Facilitative communication r(p)	Empathy r(p)
Knowledge	1			
Attitude	.010 (.868)	1		
Facilitative communication	.002 (.972)	.067 (.268)	1	
Empathy	.095 (.113)	.224 (p<.001)	.346 (p<.001)	1

3.5 연구대상자의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노인태도에 대한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가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가 모두 10보다 낮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723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6.205, p<.001), 수정된 결정계수(R²)는 .154로 설명력은 15.4%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태도에 대한 태도(t=3.641,

$p<.001$)과 촉진적 의사소통($t=6.000, p<.001$)으로 나타났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Empathy(N=277)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02.786	15.533		6.617	$p<.001$
Attitude	.372	.102	.202	3.641	$p<.001$
Facilitative communication	22.279	3.713	.333	6.000	$p<.001$
Adj. $R^2=.154$ $F=26.205(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 대상자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 공감력 정도를 알아보고 노인에 대한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은 12.08 ± 2.79 점으로 평균 정답률은 48.32%였다.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국내 연구결과들과 비교하였을 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Lim, Kim, Kim[26]에서 정답률 52.4%, Song[6]의 정답률 50.4% 보다는 낮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Yang, Oh, Kim[33]의 연구에서 정답률 50.6% 보다는 낮았고, Song[6]의 정답률 4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교과과정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해 가는 과정에 있기에 간호사보다는 낮은 점수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고, 간호대학생들 간에도 지식습득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예비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관심과 노인 간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노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노인 간호가 제공될 수 있게 교육과 실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77.12 ± 12.33 점으로 나타나 중립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im, Kim, Kim[26]의 연구에서 81.53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ong[6]의 연구에서 80.30점, Kim, Yang, Oh, Kim[33]의 연구에서 82.08점으로 나타나 모두 중립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에서 노인업무 선호도에서 좋다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은 13.7%로 나타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 돌봄이나 노인 간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로 세대 차이는 더 급격하게 나타날 것이고 노인 간호대상자도 증가할 것을 미루어 볼 때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노인 대상자의 시뮬레이션 교육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킨 결과[24]를 통해 노인에 대한 교육과 실습의 병행으로 노인대상자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촉진적 의사소통은 3.73 ± 0.34 점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ong[32]의 연구에서 3.26점과는 차이가 나타났다. 같은 도구가 아니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i[18]의 연구에서 3.58점, Cho[19]연구에서 3.70점으로 유사하거나 다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촉진적 의사소통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정도의 측정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Hwang[34]의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이 노인병동 임상실습에서 노인이 처한 상황과 심리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노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사전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결과와 간호학생이 노인과 의사소통하는 유형은 미래의 간호사가 된 후 노인환자들과의 상호작용 수준을 예측하는 변수라고 보고한 Tuohy[35]의 결과를 통해 노인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론적인 지식과 노인대상자를 간호하는 임상현장에서 의사소통 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간호학과에서는 기본 교과목인 의사소통 과목을 수강하여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이론수업과 실습에서 실제적인 의사소통 지도를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감력은 214.66 ± 22.72 점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ong[32]에서의 연구에서 222.53점 보다 낮은 공감력을 나타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같은 도구의 측정은 아니더라도 Ji[18]의 연구에서 3.68점, Park, Chung[21]의 연구에서 3.4점으로 유사하거나 낮은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일반간호사보다 수간호사가 공감능력이 높았고, 경력이 많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결과로 공감능력은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발전 가능하지만, 단기간에 습득하기는 힘든 것으로 볼 수 있다 [36].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노인 대상자에 대한 공감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에서 관련 수강과목을 개설하고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습 교육과 지도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력의 차이에서는 노인 간호 업무 선호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간호 업무 선호도가 높은 간호사가 공감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Song[3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공감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에 대한 공감력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촉진적 의사소통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감력과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8,21]와 유사하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태도와 촉진적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공감력이 높아지는 결과는 노인에 대한 공감력과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촉진적 의사소통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노인에 대한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촉진적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감력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Jeong[37]의 결과와 인지, 감정 공감력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친 Ji[18]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공감력은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주요한 요인으로서 공감을 잘 할수록 대인관계를 잘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한다는 Chung[38]의 결과를 통해서도 설명이 된다. 임상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상자에 대한 공감력은 간호대학생에게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요소이지만 본 연구에서 공감력의 설명력은 15.4%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공감력 도구가 임상현장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이므로 임상 실습경험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간호대학생에게는 공감력 측정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과 실습 참여 시간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복연구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감력 도구 선정에 따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공감력은 임상실습에서 임상지도자가 대상자에게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감적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 더욱 공감점수가 높아진 것을 보고한 Ouzouni, Nakakis[39]의 연구를 기반으로 공감력을 갖춘 교수와 임상강사들이 학생들을 훈련하고 지도

할 수 있도록 임상간호실습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간호의 바탕에서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대상자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한 공감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에게 간호요구가 가속화되고 있는 노인대상자에 대한 공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로 공감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학적 중재방법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공감력에는 노인에 대한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공감력 향상은 간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노인대상자에 대한 예비 간호사로서의 준비와 함께 전문직업인으로서 성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을 통해 노인대상자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감력 향상 및 공감 행동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확대 해석함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공감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와 공감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 공감력 정도를 알아보고 노인에 대한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력의 차이에서 노인 간호 업무 선호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 공감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와 촉진적 의사소통이 노인에 대한 공감력과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촉진적 의사소통은 공감력을 15.4%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공감력 향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와 공감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Statistic on Korea-Census population", 2012.
- [2] Y. J. Lee, S. J. Yoo, S. M. Kim, "Study on the attitude toward elderly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Education*, Vol.6, No.2, pp. 199-211, 2003.
- [3] M. Wallace, P. Greiner, S. Grossman, J. Lange, D. T. Lippman,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 geriatric nurse education program",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Vol.37, No.5, pp. 214-217, 2006.
- [4] J. R. Han,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0, No.3, pp.115-127, 2000.
- [5] Y. S. Lim, J. S. Kim, K. S. Kim, "Nurse aging knowledge attitud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2, No.1, pp. 31-46, 2002.
- [6] E. J. Song, "Nurses and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Nursing Science*, Vol.16, No.2, pp. 12-19, 2004.
- [7] S. M. Kwon, M. S. Kwon, O. G. Kwag,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2, pp. 1129-1136,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2.1129>
- [8] J. J. Lee, "A study on nurses promoting communication and personal rel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2003.
- [9] E. Bramhall, "Effect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practice", *Nursing Standard*, Vol.29, No.14, pp. 53-59, 2004. DOI: <http://dx.doi.org/10.7748/ns.29.14.53.e93556>
- [10] A. Holroyd, S. Dahlke, C. Fehr, P. Jung, A. Hunter, "Attitudes toward aging: implications for a caring profess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48, No.7, pp. 374-380, 2009.
- [11] S. Park, "Empathy: Yesterday and Today", Changjisa: Seoul, 2004.
- [12] E. T. Buyuk, S. Rızalar, E. Gudek, Z. Guney, "Evaluation of empathetic skills of nurses working in oncology units in Samsun, Turkey", *International Journal of Caring Sciences*, Vol.8, No.1, pp. 131-139, 2015.
- [13] R. Zachariae, C. G. Pedersen, A. B. Jensen, E. hrnrooth, P. B. Rossen, H. Maase, "Association of perceived physician communication style with patient satisfaction, distress, cancer-related self efficacy and perceived control over the disease", *British Journal Cancer*, Vol.88, pp. 658-665, 2003.
- [14] B. Penprase, B. Oakley, R. Temes, D. Driscoll, "Empathy as a determining factor for nursing career selec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52, No.4, pp. 192-197, 2013.
- [15] L. Goubert, K. D. Craig, T. Vervort, S. Morley, M. J. de C Sullivan, A. C. Williams, A. Cano, G. Crombez, "Facing others in pain: the effects of empathy", *Pain*, Vol.118, No.3, pp. 285-288, 2005.
- [16] H. S. Jung, "Influencing factor on nursing students' attitude to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Data Analysis Society*, Vol.14, No.4B, pp. 2025-2037, 2012.
- [17] J. Yu, M. Kirk, "Evaluation of empathy measurement tools in nursing: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65, No.9, pp. 1790-1806, 2009.
- [18] E. J. Ji,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3B, pp. 1685-1697, 2015.
- [19] I. Y. Cho,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related educational need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4 pp. 2593-2601,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4.2593>
- [20] S. Y. Yang,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ego 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3B, pp. 1699-1710, 2015.
- [21] J. H. Park, S. K. Chung, "The relationship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4, pp. 2593-2601,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1.7698>
- [22] E. J. Oh, S. H. Ko, J. Y. Kim, S. R. Kim,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21, No.4, pp. 426-434, 2015.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5.21.4.426>
- [23] J. Y. Kim, N. R. Heo, H. J. Jeon, D. Y. Jung, "Effects of simulation education on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attitude about the elderly for nursing students: a learning approach based on an elderly-with-cognition-disorder scenario",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1, pp. 54-64,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1.54>
- [24] G. Ance, "Developing empathy in nurses: An inservice training program",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Vol.20, No.6, pp. 249-257, 2006.
- [25] E. B. Plamore, "The facts on aging quiz (2nd ed)", New York, Spinger Publishing Company, 1998.
- [26] Y. S. Lim, J. S. Kim, K. S. Kim,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2, No.1, pp. 31-46,

2002.

- [27] G. F. Sanders, J. E. Montgomery, J. F. Pittman, C. Baikwell, "Youth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3, No.1, pp. 59-70, 1984.
- [28] R. R. Carkhuff, "Helping Human Relation Vol I, II",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69.
- [29] J. G. Ma,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personality trai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88.
- [30] E. L. La Monica, "Construct validity of an empathy instrument",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4, No.4, pp. 389-440, 1981.
- [31] M. S. Kim,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korean empathy construct rating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18, No.1, pp. 26-33, 1984.
- [32] E. S. Song, "The factors of empathy for older patient in general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5.
- [33] S. Y. Kim, K. M. Yang, H. E. Oh, & J. S. Kim, "Nursing and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2, No.3, pp. 21-36, 2004.
- [34] Y. Y. Hwang, "A study o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the elderly unit", Vol.11, No.1, pp. 73-85, 2005.
- [35] D. Tuohy, "Student nurse-older person communication, Nurse Education Today", Vol. 23, No.1, pp. 19-26, 2003.
DOI: [http://dx.doi.org/10.1016/S0260-6917\(02\)00160-0](http://dx.doi.org/10.1016/S0260-6917(02)00160-0)
- [36] P. Sully J. Dallas, "Essential communication skills for nursing". Elsevier, Mosby, 2005.
- [37] H. S. Jeong,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attitude to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Data Analysis Society, Vol.14, No.4B, pp. 2025-2037, 2012.
- [38] M. S. Chung, "Relationship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2, pp. 332-340,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332>
- [39] C. Ouzouni, & K. Nakakis, "An exploratory study of student nurses' empathy", Health Science Journal, Vol.6, No.3, pp. 534-552, 2012.

양 현 주(Hyun-Joo Yang)

[정회원]



- 2004년 8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15년 9월 :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9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모유수유, 건강증진, 의료 질 관리

김 현 정(Hyun Jung Kim)

[정회원]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아동전문간호사)
- 2015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 박사 수료)
- 2004년 1월 ~ 2014년 4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근무
- 2015년 9월 ~ 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 발달 및 건강, 여성 건강

변 은 경(Eun-Kyun Byun)

[정회원]



- 2002년 8월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원 (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2013년 2월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건강, 우울, 정신장애인 회복